

조세 재정

2018. 6. 7(통권 제68호)

BRIEF

캐나다 예산안 분석 및 평가

김우현 부연구위원(044-414-2338)

김민경 연구원(044-414-2325)

김진아 전문연구원(044-414-2343)



BRIEF

캐나다 예산안 분석 및 평가

김 우 현 부연구위원(044-414-2338)

김 민 경 연구원(044-414-2325)

김 진 아 전문연구원(044-414-2343)

I. 예산기조 및 경제·재정 전망	2
II. 주요 세입정책	4
III. 주요 세출정책	11
IV. 요약 및 평가	19



I 예산기조 및 경제·재정 전망

1. 예산기조

- ● FY2018 예산안은 「강한 중산층을 위한 형평성 제고와 경제성장(Equality+Growth: A Strong Middle Class)」을 주제로, 모든 캐나다 국민이 미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
 - 캐나다 정부는 중산층 강화와 캐나다의 장기 경제성장률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음
 - 이번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으로 성장(Growth), 발전(Progress), 조화(Reconciliation), 도약(Advancement)을 제시하고 있음

2. 경제전망¹⁾

- ● (경제성장률) 2018년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는 4.0%,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는 2.2%
 - 2017년 명목GDP 성장률은 5.3%, 실질GDP 성장률은 3.0%를 기록, 작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경제성장 전망치를 나타냄
- ● (노동시장) 2018년 실업률은 2017년 6.3% 대비 0.3%p 낮아진 6.0%로 전망
 - 2017~2022년 평균 실업률은 6.1%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이후 약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캐나다 실업률은 5.9% (2017년 11월 기준)까지 하락하였음
 - 이는 최근 40년간 가장 낮은 수준
- ● (물가)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망
 - 2017년 평균 소비자물가(average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 1.6%, 2017년말 기준 소비자물가(end of period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 1.8%임

1) 이하 각종 경제지표의 2017년 실적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8년 4월)를 참조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1/weodata/index.aspx>)

〈표 1〉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명목GDP 성장률	5.2 (5.3)	4.0 (4.3)	3.5 (4.0)	3.8 (4.0)	3.6 (3.8)	3.8 (3.7)
실질GDP 성장률	3.0 (3.0)	2.2 (2.1)	1.6 (2.0)	1.7 (1.8)	1.6 (1.8)	1.8 (1.6)
실업률	6.4 (6.3)	6.0 (6.2)	6.0 (6.2)	6.1 (6.2)	6.0 (6.3)	6.0 (6.4)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6 (1.8)	1.9 (2.2)	2.0 (2.1)	1.9 (2.1)	1.9 (2.1)	2.0 (2.0)

주: 1. () 안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의 실적치 및 전망치

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안은 연말 기준 물가지수(end of period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 기준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2.1 일부 발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8년 4월)

3. 재정전망

- (총수입) FY2018-19 총수입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234억캐나다달러, 향후 FY2022-23까지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14.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총지출) FY2018-19 총지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385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 FY2018-19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122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263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재정수지) FY2018-19 재정적자는 181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2-23에는 123억캐나다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²⁾ 비율은 FY2018-19에는 30.1%로 전망되며, 이후 FY2022-23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2)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표 2〉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총수입 (GDP 대비 %)	293.5 (14.4)	309.6 (14.5)	323.4 (14.5)	335.5 (14.5)	348.0 (14.5)	362.1 (14.6)	373.9 (14.5)
총지출 (GDP 대비 %)	311.3 (15.3)	329.0 (15.3)	338.5 (15.2)	350.0 (15.1)	361.9 (15.1)	372.9 (15.0)	383.2 (14.9)
프로그램지출 (GDP 대비 %)	287.2 (14.1)	304.6 (14.2)	312.2 (14.0)	321.5 (13.9)	331.5 (13.8)	340.7 (13.7)	350.1 (13.6)
이자지출 (GDP 대비 %)	24.1 (1.2)	24.4 (1.1)	26.3 (1.2)	28.6 (1.2)	30.3 (1.3)	32.2 (1.3)	33.1 (1.3)
위험조정	-	-	-3.0	-3.0	-3.0	-3.0	-3.0
재정수지 (GDP 대비 %)	-17.8 (-0.9)	-19.4 (-0.8)	-18.1 (-0.8)	-17.5 (-0.8)	-16.9 (-0.7)	-13.8 (-0.6)	-12.3 (-0.5)
연방채무1 (GDP 대비 %)	631.9 (31.0)	651.5 (30.4)	669.6 (30.1)	687.1 (29.8)	704.0 (29.4)	717.8 (28.9)	730.1 (28.4)

주: 1. FY2017-18 연방 채무 전망치에 기타 포괄 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2.6 일부 발췌

II 주요 세입정책

1. 세입전망

- ● FY2018-19 총세입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23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5%)로 전망되며, 이후 연평균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조세수입) 전년 대비 3.8% 증가한 2,723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2.2%) 전망
 - (고용보험)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17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2018년 고용보험요금 상향 조정(1.66%) 및 예산안 내 고용보험 관련 정책들의 영향으로 향후 전망기간 동안 고용보험 수입은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기타 세입) 전년 대비 9.7% 증가한 294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분야별 수입 전망

- 가. 개인소득세

- 전년 대비 4.0% 증가한 1,614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전망
 - 개인소득세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소득세제의 누적적 성격과 개인소득 증가로 인해 명목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나. 법인세

- 전년 대비 1.9% 감소한 473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4% 증가 전망
 - 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2019년 9%)에 기인하여 법인세 수입은 명목GDP 성장률보다 낮게 증가할 전망

- 다. 비거주자 소득세

- 83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9% 증가 예상

- 라. 재화 및 용역세

-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377억캐나다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6% 증가 예상

- 마. 관세

- 55억캐나다달러 수입 전망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시행으로 관세 수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

바. 기타소비세

- ● 전년 대비 4.3% 증가한 121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

〈표 3〉 세입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2016-17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총소득세(A)	193.0	208.6	217.0	225.0	233.2	243.0	251.2
개인소득세	143.7	152.3	161.4	168.6	175.2	182.8	190.0
법인세	42.2	48.2	47.3	47.9	49.4	51.4	52.2
비거주자소득세	7.1	8.2	8.3	8.5	8.7	8.8	9.0
총소비세(B)	51.3	53.7	55.4	56.7	58.4	60.2	62.0
재화 및 용역세	34.4	36.5	37.7	39.2	40.6	42.0	43.5
관세	5.5	5.5	5.5	5.3	5.4	5.5	5.7
기타소비세	11.5	11.6	12.1	12.3	12.5	12.7	12.8
총조세수입(C=A+B)	244.3	262.3	272.3	281.7	291.6	303.2	313.2
고용보험(D)	22.1	20.6	21.7	22.6	23.3	24.1	25.0
기타 세입(E)	27.1	26.8	29.4	31.3	33.1	34.8	35.8
총세입(F=C+D+E)	293.5	309.6	323.4	335.5	348.0	362.1	373.9
GDP 대비 비중(%)							
개인소득세	7.1	7.1	7.2	7.3	7.3	7.4	7.4
법인세	2.1	2.3	2.1	2.1	2.1	2.1	2.0
재화 및 용역세	1.7	1.7	1.7	1.7	1.7	1.7	1.7
총조세수입	12.0	12.2	12.2	12.2	12.2	12.2	12.2
고용보험	1.1	1.0	1.0	1.0	1.0	1.0	1.0
기타 세입	1.3	1.3	1.3	1.4	1.4	1.4	1.4
총세입	14.4	14.5	14.5	14.5	14.5	14.6	14.5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2.7 일부 발췌

2. 주요 세법개정안

- 이번 예산안에서는 과세형평성 제고, 경제성장, 중산층 지원 확대 등의 정책목표하에 2018년부터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함³⁾
 - 캐나다는 수년간 중산층 강화 및 캐나다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를 지속해옴
 - 각 세법개정 항목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가. 법인세

- 법인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규모법인의 경감세율 인하, 소규모법인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혜택 제한, 클린에너지 지원을 위한 가속상각 확대
- 소규모법인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2018년부터 10%로, 2019년부터 9%로 인하함
 - 소규모법인은 연간 사업소득이 50만캐나다달러 미만인 법인으로,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은 15%인 반면 소규모법인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은 10.5%임
- 소규모법인은 사업소득의 50만캐나다달러까지 경감세율이 적용되나, 수동소득에 따라 경감세율 적용구간을 축소
 - 이는 고소득 개인 납세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수동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5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인하되며, 수동소득이 15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 예로, 연간 수익률을 2%로 가정 시 수동 자산 보유액이 7,500만캐나다달러인 경우, 연간 수익률을 5%로 가정 시 수동 자산 보유액이 3천만캐나다달러인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가속상각이 허용되는 클린에너지 장비 구입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
 - 현행 규정에서는 2020년까지 클린에너지 생성 및 전환을 위한 장비 투자 시, 구입연도에 투자금액의 50% 비용상각을 허용함

3) 캐나다 재무부, <https://www.budget.gc.ca/2018/docs/download-telecharger/index-en.html> (검색일자: 2018.03.16.)

나. 개인소득세

- ● 개인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반려동물 관련 비용 확대, 신탁의 신고의무 부여
- ● 근로장려금의 최대 수령가능금액 및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을 확대함
 - 캐나다 재무부는 2017년 가을 경제성명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추가 5억캐나다달러의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수령가능금액을 기존 1,192캐나다달러에서 1,355캐나다달러로 인상하였으며,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소득기준 금액을 12,820캐나다달러로 상향⁴⁾
 - 또한, 기존에는 소득금액이 21,000캐나다달러인 납세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 24,000캐나다달러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짐⁵⁾
 - 근로장려금 인상안은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한 특별히 훈련된 반려동물의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트라우마, 야경증과 같은 정신장애가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히 훈련된 동물만 해당됨
 - 단순한 심신안정을 위한 반려동물 비용 및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 신탁의 경우 2021년부터 신탁인 정보, 신탁 수익자, 신탁 설계인의 정보를 매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신탁 수익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현행 규정에서는 신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나 신탁 수익자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음

4)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신고자 기준이며, 부부합산신고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신고자의 경우 기존 2,165캐나다달러에서 2,355캐나다달러로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가능 금액을 상향함

5)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신고자 기준이며, 부부합산신고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신고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지는 소득금액 기준은 기존 32,000캐나다달러에서 36,000캐나다달러로 인상됨

- 단, 신탁이 설립된 지 3개월 미만이거나 총자산이 5만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신탁 수익자 관련 정보보고 의무가 면제됨

[그림 1] 수동자산 보유금액별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 기준금액

Business Income	Passive Assets								
	1,000,000 ^(*) / 2,500,000 ^(**)	1,500,000 ^(*) / 3,750,000 ^(**)	2,000,000 ^(*) / 5,000,000 ^(**)	2,500,000 ^(*) / 6,250,000 ^(**)	3,000,000 ^(*) / 7,500,000 ^(**)				
50,000	NOT AFFECTED					0			
75,000						0			
100,000						0			
200,000						125,000	0		
300,000						250,000	125,000	0	
400,000						375,000	250,000	125,000	0
500,000						375,000	250,000	125,0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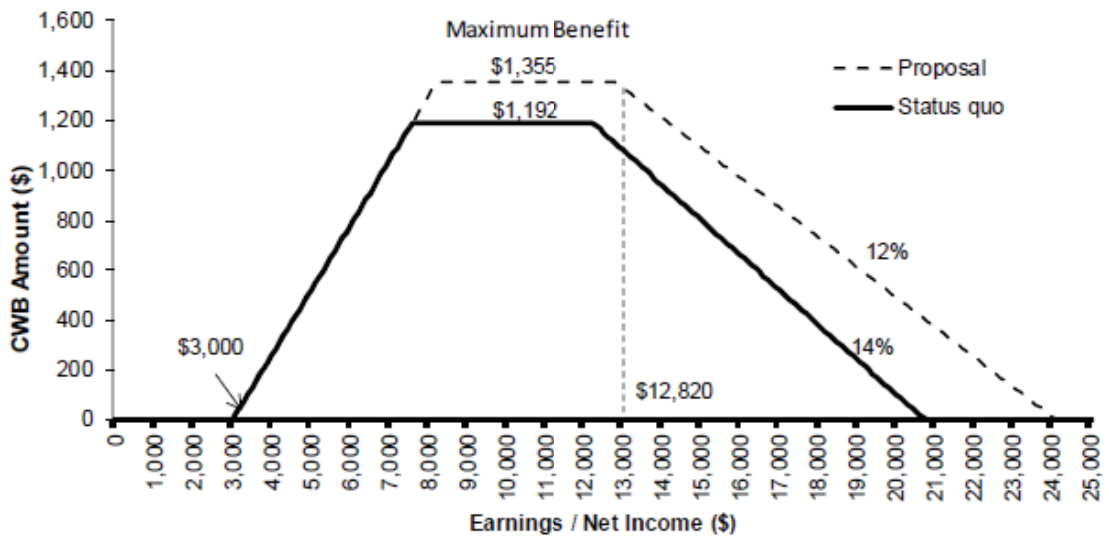
Note: Assumes that the corporation has less than \$10 million of taxable capital.

(*) Assuming a five-per-cent rate of return.

(**) Assuming a two-per-cent rate of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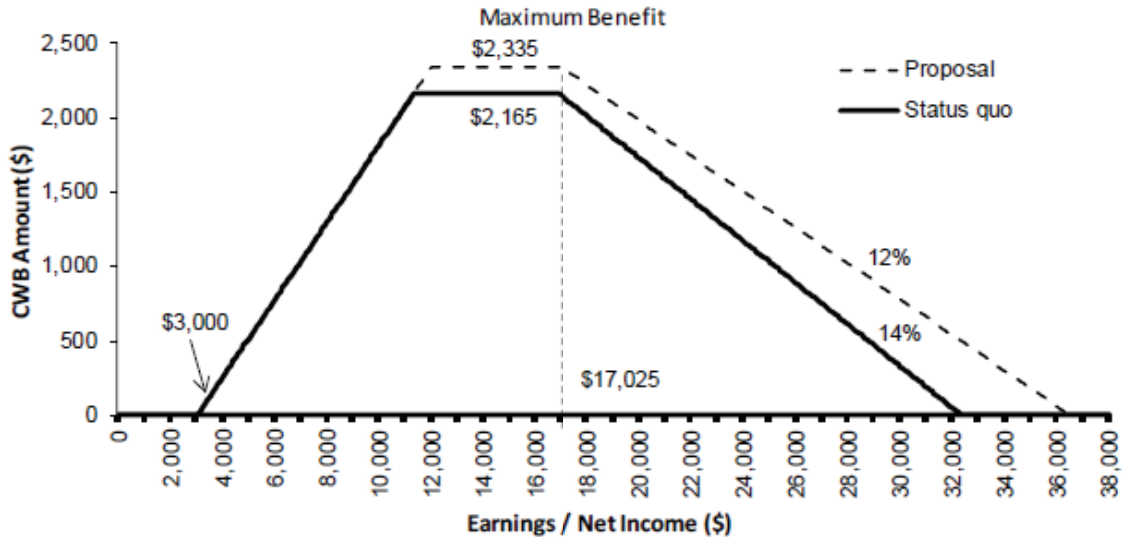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Table 3, 2018.02.27.

[그림 2] 캐나다의 근로장려금 인상안(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신고자 기준)



자료: 캐나다 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Chart 1, 2018.02.27.

[그림 3] 캐나다의 근로장려금 인상안(가장, 부부합산 신고자 기준)



자료: 캐나다 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Chart 2, 2018.02.27.

다. 소비세

- 소비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투자유한회사 서비스 판매세 부과, 담배에 추가 소비세 부과, 개인 사용 목적의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 과세 방안 발표
- 소비세 개정안으로 투자유한회사에 파트너가 제공한 관리 및 행정서비스는 공정가치에 따라 판매세(GST/HST)를 부과
 - 캐나다 정부는 2017년 9월 8일 투자유한회사에 제공한 관리 및 행정 서비스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공정가치에 따라 판매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규정함
-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은 5년마다 물가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던 것을 매년 인상하는 동시에 추가로 담배 200개비당 추가 1캐나다달러를 부과
- 개인 사용 목적의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는 종량세 및 종가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율 및 주정부와 세수배분안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을 대부분 차용함⁶⁾

- 2017년 12월 발표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는 1g당 1캐나다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총세수 중 75%는 주·지방정부에, 25%는 연방정부에 배분할 것을 발표함

〈표 4〉 캐나다의 개인용 대마초 과세방안

	연방세율 (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		주·지방정부의 추가 세율 (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	
	연방단일세율	증가세	연방단일세율	증가세
Flower	0.25/gram	제품가격의 2.5%	0.75/gram	제품가격의 7.5%
Trim	0.075/gram		0.225/gram	
Seed	0.25/seed		0.75/seed	
Seeding	0.25/seeding		0.75/seeding	

자료: 캐나다 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Table 5, 2018.02.27.

Ⅲ 주요 세출정책

1. 세출전망

- 총지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385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프로그램 지출은 2.5% 증가한 3,122억캐나다달러, 이자 지출은 7.8% 증가한 263억캐나다달러 전망
 - 주요 프로그램 지출 증가 분야는 노령층 지원(전년 대비 5.3%), 직접 프로그램 부처 이전 지출(전년 대비 7.7%), 보건의료 지출(전년 대비 4.0%)
- 분야별 지출 전망

6) 2017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 「캐나다 대마초 과세 및 세수배분 관련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 발표」, 2018.02.15.에 기술되어 있음

가.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981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22-23에는 1,161억캐나다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노령층 지원) 노령층 지원 지출은 536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노령층 인구 전망 증가에 기인하여 FY2022-23에는 670억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지출은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소득보장보조금 및 수당 지급(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nd Allowance payments)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노인지원지출은 연평균 5.6%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고용보험 지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07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평균 지급수당 증가의 영향으로 향후 연평균 3.6%의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아동지원) 전년 대비 1.3% 증가한 237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8-19부터 시작되는 급여연동⁷⁾의 영향으로 FY2022-23에는 251억캐나다달러, 연평균 1.4% 증가할 전망

나.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

- ●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은 FY2018-19 736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에는 847억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 캐나다 보건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FY2018-19 386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449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⁸⁾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매년 3% 증가를 법에서 규정, FY2018-19 142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159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연료세 기금) 연료세기금(Gas Tax Fund)은 FY2018-19 22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23억캐나다달러를 나타낼 전망
 - (홈케어 및 정신보건) FY2017-18 예산에서 도입된 지방·주정부 홈케어 및 정신보건 지원금은 FY2018-19 9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12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7) 2016년 7월부터 아동 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과 아동복지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를 대체하는 신규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가 도입. 2020년부터 물가연동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예산안에서 2년 앞당긴 2018.7월부터 생계비 인상에 따라 급여가 인상될 예정임

8) FY2017-18부터 캐나다 보건지출은 명목GDP 성장률의 3년 이동 평균에 따라 증가하며 최소 3% 증가 보장

다. 직접프로그램지출

- 직접프로그램지출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1,405억캐나다달러, FY2022-23에는 1,493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부처 이전지출경비가 증가분의 큰 부분을 차지
 - (부처 이전지출경비) 부처 이전지출경비는 FY2018-19 475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520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FY2017-18에 새로 도입된 상이군인연금(Pension for Life for veterans) 지출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FY2018-19부터는 연평균 1.1% 증가로 FY2022-23에는 973억캐나다달러에 이를 전망

〈표 6〉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2016-17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A) (Major Transfers to persons)	90.9	94.4	98.1	102.3	106.8	111.5	116.1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48.2	50.9	53.6	56.7	60.1	63.5	67.0
고용보험(EI benefits) ¹⁾	20.7	20.1	20.7	21.7	22.5	23.3	24.0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22.1	23.4	23.7	23.9	24.3	24.7	25.1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B)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68.7	70.5	73.6	76.5	79.3	82.3	84.7
건강관련(Canada Health Transfer)	36.1	37.1	38.6	40.2	41.7	43.3	44.9
사회보장관련(Canada Social Transfer)	13.3	13.7	14.2	14.6	15.0	15.5	15.9
재정균등화 교부금(Equalization)	17.9	18.3	19.0	19.8	20.5	21.3	22.1
준주 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3.6	3.7	3.8	3.9	4.0	4.1	4.2
연료세기금(Gas Tax Fund) ²⁾	2.1	2.1	2.2	2.2	2.2	2.3	2.3
홈케어 및 정신보건 (Home care and mental health)	0.0	0.3	0.9	1.1	1.3	1.5	1.2
기타 재정협정(Other Fiscal Arrangements) ³⁾	-4.3	-4.7	-4.9	-5.3	-5.4	-5.6	-5.9
직접프로그램지출(C) (Direct Program Expenses)	127.6	139.7	140.5	142.7	145.3	147.0	149.3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41.6	44.1	47.5	50.4	52.4	52.0	52.0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⁴⁾	86.0	95.6	93.1	92.3	92.9	94.9	97.3
총프로그램지출(A+B+C) (Total Program Expenses)	287.2	304.6	312.2	321.5	331.5	340.7	350.1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5	4.4	4.4	4.4	4.5	4.5	4.5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4	3.3	3.3	3.3	3.3	3.3	3.3
직접프로그램지출 (Direct Program Expenses)	6.3	6.5	6.3	6.2	6.1	5.9	5.8
총프로그램지출 (Total Program Expenses)	14.1	14.2	14.0	13.9	13.8	13.7	13.6

주: 1)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간병급여 등이 포함되며 고용보험 지출 중 90%를 차지
 2) 지역향상기금(Community Improvement Fund)의 구성항목
 3) 퀘벡 주에 대한 청소년 회복 수당, Stand Programs 대체 지불, 법정 보조금, 2005년 해위협약에 따른 지급금 등을 포함
 4) 자본상각비용(capital amortization expenses)을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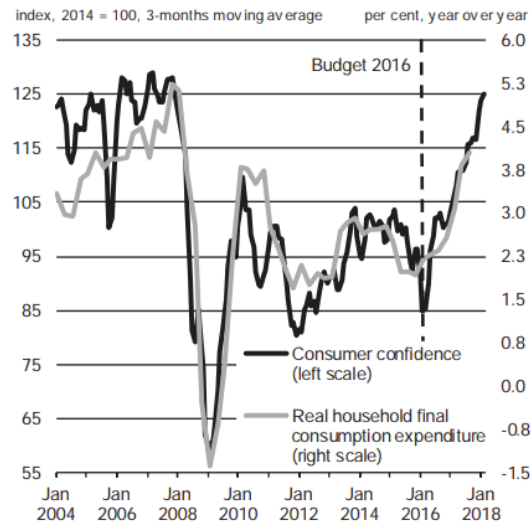
2. 주요 정책

- ● 캐나다는 FY2016-17 예산부터 중산층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며, FY2018-19에도 ‘형평성 제고와 경제성장(Equality + Growth)’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강한 중산층(A Strong Middle Class) 확충의 목표를 재확인함
 - 강한 경제성장과 견실한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강조해온 중산층 강화 목표의 정책 시행이 캐나다인들의 소비 증가와 평균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그림 4 참조)
 - 성장(Growth), 발전(Progress), 조화(Reconciliation), 도약(Advancement)의 예산 편성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예산 배분 내역을 소개함 2

[그림 4] 캐나다 소비 및 임금 성장 추세

Chart 2

Real Household Consumption Growth and Consumer Conf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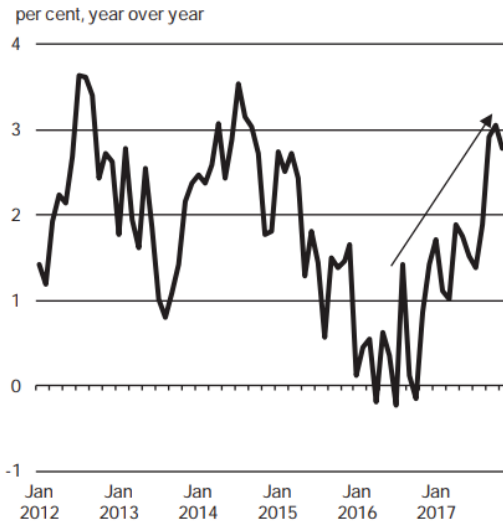


Note: Last data points are 2017Q3 for consumption and January 2018 for consumer confidence.

Sources: Statistics Canada;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출처: 캐나다 Budget 2018(2018.2.27.), Chart 2, p.23

Growth in Average Weekly Earnings



Note: Last data point is November 2017.

Source: Statistics Canada, Survey of Employment, Payroll and Hours (SEPH).

가. 성장(Growth)

- ●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의 중산층 진입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함
 - (새로운 근로장려금(Canada Workers Benefit) 도입) 2019년부터 새로운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최대 혜택급여를 늘리고, 급여가 중단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높임 ([그림 2], [그림 3] 참조)
 - 30만명의 추가 저소득층이 2019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혜택 확대 정책과 더불어 정부는 매년 약 10억캐나다달러를 추가 지원
 -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강화) 2018년 7월부터 생계비 상승에 연계하여 아동복지급여를 확대, 향후 5년간 56억캐나다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
 - 2016년 도입된 아동복지급여정책을 통해 캐나다 가구의 90%, 6백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8년에는 가구당 평균 6,800캐나다달러를 수령

- (남녀간 임금 격차 해소) 공공 규제 분야(federally regulated sector)를 중심으로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달성하기 위한 선도적 임금 평등 정책을 2018년 가을부터 추진할 예정
 -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할 경우, 2026년까지 1,500억캐나다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맥킨지 보고서를 근거로 함
- (부모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35주였던 부모 합산 총육아휴직 기간이 40주로 확대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12억캐나다달러 지원 및 이후 매년 345백만캐나다달러를 투입
- (청년 및 여성 노동시장 지원) 청년 고용을 위한 하계일자리프로그램(Canada Summer Jobs program)의 규모를 두 배로 확대 계획(현재 약 35,000개의 일자리), 남성 중심 분야의 여성 견습 지원 프로그램(Apprenticeship Incentive Grant for Women)을 통해 여성 취업자에게 2년간 최대 6,000캐나다달러 지원
- (세제 형평성 강화) 최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을 1% 상승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

나. 발전(Progress)

- ● 연구자 지원 및 기술 개발 투자에 약 40억캐나다달러를 투입, 산업 발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연구 지원) 차세대 연구자 지원, 빅데이터 분석, 연구 장비 지원에 향후 5년간 17억캐나다달러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기초연구분야 투자로는 캐나다 역사상 최고 투자 규모
 - (연구지원위원회 예산 확대) 대학 및 의료 연구 병원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3개 위원회⁹⁾ 예산 대폭 증가
 - 향후 5년간 925백만캐나다달러 지원, 이후 매년 235백만캐나다달러 투입
 - 국제적, 다학제적이며 실패 위험이 높은 연구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위한 3기관 합동의 연구 펀드를 조성(향후 5년간 275백만캐나다달러, 이후 매년 65백만캐나다달러)
 - (빅데이터 구축 지원(Digital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 연구자들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및 빅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572.5백만캐나다달러, 이후 매년 52백만캐

9) 자연 과학 및 엔지니어링 연구위원회(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보건 의료 연구위원회(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사회·인문 과학 연구위원회(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나다달러를 지원

다. 조화(Reconciliation)

- 사회 통합의 목적하에 캐나다 원주민¹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50억캐나다달러 지원
 - 캐나다의 The Centre for the Study of Living Standards는 캐나다 원주민의 교육 및 노동시장 지원을 통해 2031년 기준 360억캐나다달러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위탁 아동 지원) 6년간 14억캐나다달러를 투입하여, 캐나다 원주민 아동과 가족 지원(child and family services) 강화
 - 원주민 아동 수는 전체 캐나다 아동의 7.7%이지만, 가정 위탁(foster care)¹¹⁾ 아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식수 공급 지원) 2016년에 시작된 식수 공급 사업 지원(5년간 18억캐나다달러 규모)에 덧붙여 FY2018-19부터 3년간 1억 7천만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노동시장 지원) 5년간 20억캐나다달러, 이후 매년 4억 1천만캐나다달러를 투입하여, 원주민 기술 개발 고용 훈련 프로그램(Indigenous Skills and Employment Training Program) 신설
 - 원주민의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여 원주민과 비원주민간 노동시장 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목적
 - (주거 지원) 각 원주민 집단의 지역별 주거개선 사업에 총 17억 4천만캐나다달러 투입
 - (보건의료 지원) 필수의료서비스 시설 지원, 중독 예방 사업 지원, 보험미가입원주민 지원 사업(Non-insured Health Benefit Program) 등에 향후 5년간 15억캐나다달러, 이후 매년 1억 5천만캐나다달러 지원

라. 도약(Advancement)

-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환경 보호, 국제 원조 강화, 사회안전,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재정 투입 확대

10)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 이누이트(Inuit), 메티스(Métis)

11) 가정 위탁(foster care)은 친부모와의 생활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신체적 보호와 가정환경을 제공해주는 사회복지사업임 (사회복지학 사전 2009 참고)

- (환경 보호) 자연, 공원, 야생 구역의 보존, 수상 생태계 보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클린 에너지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환경 개선 분야에 재원 투입
 -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생물 보호를 위해 5년간 13억캐나다달러를 투입하며, 특히 고래종 보호를 위해 5년간 167.4백만캐나다달러 투입
 - 환경 영향 평가 및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10억캐나다달러 투입
 - 기상예보 현대화, 수자원 관리 개선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
- (국민 보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 최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231.4백만캐나다달러, 이후 매년 13.5백만캐나다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 2016년 한 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2,800명 사망
 - 담배의 불법 유통 규제 및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해 5년간 80.5백만캐나다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연방 담배 규제 프로그램(The Federal Tobacco Control Strategy)을 강화하고, 1카틴(200개비)당 1캐나다달러의 소비세 인상
 - 40만명 이상의 치매 환자를 위해 향후 5년간 20백만캐나다달러, 이후 매년 4백만캐나다달러를 지출, 지역 기반의 치매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
 - 의약품 보험 적용을 위한 연방 의약품 보험(National Pharmacare)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립¹²⁾
- (사회 안전 강화) 성범죄, 인신매매 등 개인 안전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사이버상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및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해 재원 투자
 - 성폭력 예방,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cyber bullying), 피해자 보호, 성폭력센터 지원 등 성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해 향후 5년간 86백만캐나다달러, 이후 매년 20백만캐나다달러 지원
 -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실천을 위해 향후 5년간 508백만캐나다달러, 이후 매년 109백만캐나다달러 지원

12) 캐나다의 공적 의료보험은 병원 내에서 제공된 의약품에 한해서 보험 적용

IV 요약 및 평가

1. 예산 기초

- 두터운 중산층 성장을 위해 성장, 발전, 조화, 도약의 가치를 내걸고,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와 미래 경제성장 기여를 통해 번영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조세·재정 정책 수립

2. 주요 세입정책 내용

- (개인소득세) 근로장려금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반려동물 관련 비용 확대, 신탁의 신고의무 부여
- (법인세) 소규모법인의 경감세율 인하, 소규모법인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혜택 제한, 클린에너지 지원을 위한 가속상각 확대
- (소비세) 투자유한회사에 제공한 관리·행정 서비스에 판매세 부과, 담배 소비세율 인상, 개인용 대마초 과세방안 발표

3. 주요 지출정책 내용

- (성장) 새로운 근로장려금 도입, 아동복지급여 확대,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부모 육아휴직 기간 확대, 청년 및 여성 노동시장 지원
- (발전) 기초연구분야 투자로 사상 최고 규모의 연구 지원, 연구지원 위원회 예산 확대, 빅데이터 구축 지원
- (조화) 캐나다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통합
- (도약) 환경 보호, 국민 보건(오피오이드 중독 문제, 담배 소비 억제, 치매 환자 관리), 사회 안전 강화

4. 평가

- ● 캐나다는 지난 3년간 ‘중산층 강화’를 통한 사회 발전과 경제성장의 예산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며, 몇몇 거시 경제지표를 통해 의도했던 예산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음
 - FY2018-19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초를 이어 ‘강한 중산층’ 확충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음
- ● 세입 측면에서 소규모법인 경감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장려금 혜택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산층 강화의 확대 목표에 부합하는 세제를 마련
- ● 세출 측면에서 복지 급여 및 노동시장 지원 확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재정의 소득 재분배·소외 계층 지원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식 기반의 경제성장을 위해 연구 투자 규모를 늘린 것이 특징
- ● 캐나다 주요 은행 및 보수당은 대체로 정부의 적자 재정 운영(FY2018-19 181억캐나다달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스코샤 은행(Scotiabank)은 미국의 세제개편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캐나다 경쟁력 약화, 몇몇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 대내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 적자 재정 편성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Perrault & Webb, 2018)
 - 캐나다의 민간연구소인 Fraser Institute는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의 2015년 당선 공약인 100억캐나다달러 이하 적자 예산 편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 재무장관 빌 모르노(Bill Morneau)는 국회 예산안 연설에서 “모든 캐나다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으로 소개하며, “캐나다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투자하며, 이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함

| 참고문헌 |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캐나다 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2018.

Paris, V., & Docteur, É, 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policies in Canada, 2017.

Perrault & Webb, Canadian Federal: 2018-19 Budget, Global Economics-Fiscal Pulse, 2018.

<http://www.gbm.scotiabank.com/scpt/gbm/scotiaeconomics63/fedbudget.pdf>
(접속일자: 2018. 5. 22.)

Lamman & MacIntyre, 2018 budget-another nail in the coffin of Trudeau's balanced budget promise, Fraser Forum, 2018.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2018-budget-another-nail-in-the-coffin-of-trudeau-s-balanced-budget-promise> (접속일자: 2018. 5. 22.)



BRIEF

캐나다 예산안 분석 및 평가

2018. 6. 7(통권 제68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6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주)아미고디자인
-

